

'3토'와 평안

제 358기 2019년 4월 15일

2019년 4월 11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3,018만 명

영국 의회 변론회 개최,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죄악

[명예망] 2019년 3월 26일,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변론회가 영국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궁에서 열렸다. 각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국회의원 10여 명은 연설을 통해 중공의 양심수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과 장기간에 걸친 파룬궁 박해를 강렬하게 질책했다. 또한 영국 정부를 향해 국제사회와 함께 독립조사를 신속히 전개하고, 중공의 박해를 저지할 것을 호소하고, 영국 국민의 중국행 '장기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원의원 짐 샌넌은 개막 연설을 통해 파룬궁과 기타 종교 및 소수민족 단체에 대한 중공의 인권박해와 종교박해를 엄중하게 질책했다. "우리의 이번 변론회가 겨냥하는 것은 반인류죄이며, 중국공산당은 제2차 세계대전의 나치 이후 가장 대규모로 종교단체를 박해하는 정권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한 상임이사국이 인류 신앙 단체를 가죽처럼 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악한 폭행인) 것입니다."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피오나 브루스 의원은 중공의 양심수 장기 생체적출을 질책하며 말했다. "하나의 완전히 사악한 행위입니다." "현대 의료의 외투로 덮어 감춘 일종의 집단학살입니다." "범죄 중의 범죄입니다."

엔필드에서 온 노동당 의원 밤보스 차릴람보우스가 말했다.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행위의 대상은 주로 파룬궁이며, 이 (파룬궁에 대한) 인권박해를 중단시킬 때가 됐습니다."

아프잘 칸 의원은 가부장 수행을 하는 파룬궁 수련생이 대량으로 생체 장기적출을 당하는 것을 일깨웠다. "수천 명을 헤아리는 사람



2019년 3월 26일, 영국에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변론회가 개최됐다.

이 장기 때문에 살해된다는 믿을 만한 연구 결과를 여러 단체가 영국의학 잡지를 통해 밝혔는데,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평화롭게 가부장 수련을 하는 파룬궁 수련생과 티베트인, 위구르인, 가정교회 기독교도입니다."

깁슨 의원은 발언을 통해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와 집단학살 정책이 생체 장기적출 범죄행위라는 악행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 <가디언>, <선데이 익스프레스>, <스코츠맨> 등 영국 내 여러 주류 매체는 '중공의 대규모 양심수 장기 강제적출'이라는 주제의 뉴스 프로그램과 기사를 발표했다. 또한 변론회에서 중공의 범죄행위를 질책하고, 박해저지 호소라는 정의의 목소리를 낸 영국 국회의원에게 지지를 보냈다.

공무원, "보아하니 중공은 정말 곧 망할 것."

[대륙 투고] 갈수록 많은 중국 민중이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토(국외 탈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어느 날 오전, 나는 모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는 중년 남녀 한 쌍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둘이 함께 나온 사진을 찍어 주었다. 그들은 공무원이었고, 연달아 감사 인사를 했다.

내가 말했다. "별 말씀을요. 서로 만난 것도 인연이죠. 여러분은 혹시 하늘이 중공을 멸하니 '3토'해서 평안을 보전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내가 물었다. "여러분은 구이저우 평탕현 장자석 관광지를 아세요?" 그들은 모른다고 했다. 내가 말했다. "휴대폰으로 검색해보세요. 입장권에 큰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 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글자 여섯 개가 있어요." 남자가 휴대폰으로 내용을 입력하니 곧바로 입장권 사진이 나왔다. 그들은 입장권에 나타난 글자를 자세히 확대해보면서 읽었다. "중국공산당 망(亡)." 그들은 놀라워하며 말했다. "이게 진실한 거예요?"

내가 말했다. "더 알아보세요. 진실일 뿐 아니라 믿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여러 지질 전문가가 자세히 분석한 후에 일치된 결론을 내렸거든요. 큰 글자 여섯 개가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그들은 진실임을 확인한 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했다. "보아하니 중공은 정말 곧 망하겠어요."

내가 말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형편이 어떤지를 보시잖아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없고, 가(假), 악(恶), 투(斗)가 사회 전체에 가득하고, 돈을 위해 양심을 모두 버리고 어떤 나쁜 짓이든 모두 해서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인데, 이게 무엇 때문이겠어요?"

남자가 말했다. "신앙, 양심, 도덕, 인성의 결핍이죠." 내가 말했다. "좋은 말씀이에요. 중공이 진(真), 선(善), 인(忍)을 믿는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고, 파룬궁 수련생을 상대로 생체 장기적출까지 하는데, 이런 정당을 하늘이 가만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자석에 그런 하늘의 뜻을 공시한 거예요. 현재 도처에서 하늘이 중공을 멸하니 '3토'해서 평안을 보전하라고 말해요. 중공의 당, 단, 대를 탈퇴해야만 평안을 보전할 수 있어요."

그들은 당, 단, 대 조직에서 시원스럽게 탈퇴했다. 마지막에 남자가 기뻐하며 말했다. "저는 이 진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겁니다."

〈포브스〉, 중공은 생체 장기적출 살인 중

미국 상업 잡지 〈포브스〉가 3월 21일, 법학 연구원 이엘리나 오하프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포함한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더욱 정확하게 중공이 강제 장기적출을 통해 살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상을 깊이 아는 것이 유일한 정의신장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때때로 진상을 알기가 뜯시 어려운 것 같다며,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 사건이 그런 상황에 속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연구원(변호사, 조사원 포함)이 줄곧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 즉 허락받지 않은 인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했다. 중공이 매년 중국에서 대략 1만 건의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모두 법률을 준수하며 진행한다고 강변했지만, 연구원들은 그것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사실상 연구원들은 이런 이식수술의 수량이 매년 6만 건에서 10만 건에 이르러 중

공 정부의 예측보다 분명히 많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연구원들은 절대다수의 보고되지 않은 장기이식 사례가 불법 강제 장기적출에 속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이런 장기의 주요 출처는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생, 티베트 불교도와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 기독교도가 포함된 신양단체라고 밝혔다.

그들은 감금된 기간에 학대와 고문을 당한다. 연구원의 말대로 그들 중 수많은 사람이 장기를 강제로 적출 당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단지 동의를 얻지 않거나 유효한 동의 없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수들이 중요한 장기를 적출당한 후에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 여러 증거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므로 더 정확하게 말해서 중공은 강제 장기적출을 통해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는 유럽 의회, 미국, 캐나다, 영국과 더욱 많은 국가의 관심을 촉발했다.

‘3퇴’ 후에 장사가 변창하다

[명혜망] ‘3퇴’하여 행운을 만나고 ‘3퇴’하여 복을 받은 사례는 대륙에 널리 전해졌다. 아래의 사례를 보자.

8개월 된 임산부에게 극심한 고통 주던 신장 결석이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를 외우자 완전히 사라져

[헤이룽장 투고] 2018년, 고향의 외손자가 임신 8개월 된 외손자며느리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는 외손자며느리에게 신장 결석이 있어 고통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현지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어 성도(省城)의 큰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외손자며느리를 데리고 유명한 병원에 가니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밀했다. “못 고칩니다. 약을 못 쓰고, 수술도 아기한테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아이를 낳은 후에 다시 와서 고치세요.” 외손자며느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쉴 새 없이 소리를 쳤다.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외손자며느리가 고통 받는 것을 보고 내가 알려주었다.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정성껏 외워봐. 아주 신기해. 정성껏 공손히 외우면 곧 좋아질 거야!”

외손자며느리는 일찍이 파룬궁(파룬따파) 진상을 알고, 중공 사당의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3퇴’)했다. 외손자며느리는 내 말을 듣더니 즉시 외우기 시작했다. 외손자도 옆에서 따라 외우기 시작했다. 잠깐도 되지 않아 외손자며느리가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모두 너무나 기뻐했고, 파룬궁

의 신기함에 감탄했다. 외손자와 외손자며느리는 며칠 더 있었는데, 더 이상 아프지 않다면 가겠다고 했다! 떠나면서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나에게 물었다. “할머니, 다시 재발하지는 않을까요?”

내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사부님께서 이미 너의 신장 결석을 없애주셨어!”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외손자며느리는 예정된 출산일에 순조롭게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우리는 외손자와 외손자며느리에게 보양식을 보내주었다. 외손자가 진심으로 감격하여 말했다. “파룬따파보다 좋은 건 아무 것도 없어요!”

‘3퇴’ 후에 장사가 변창하다

[랴오닝 투고] 2014년, 나는 어느 아침 시장의 노천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사람에게 말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진, 선, 인’으로 마음을 닦아 선을 향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현재 이미 세계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어요.” 나는 그에게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쪐싼런 하오(真善忍好)”를 외우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깊이 인정하면서 시원스럽게 ‘3퇴’에 동의했다.

반 년 후, 내가 시장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멀리서 나에게 인사를 했다.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덕분에 제 장사가 날이 갈수록 잘 돼요.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 사부님께 감사드려요. 당신은 파룬궁의 덕을 본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파룬궁 사부님!”

‘톈안먼 분신자살’은 조작극



● 파룬궁 책에는 살생과 자살이 모두 유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진정한 수련인은 살생이나 자살, 분신자살을 절대 할 수 없다.

●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기구는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공 당국의 ‘국가 테러주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휘발유가 연소할 때 화염의 온도는 섭씨 500도가 넘을 것인데, 이런 고온 속에서 CCTV 화면 속 왕진동은 꼼짝없이 앉아 있을 수 있었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 담요를 들고 옆에서 기다리다가 왕진동이 카메라를 향해 구호를 모두 외친 후에야 소방 담요를 그에게 던졌다. 이것이 연극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녀는 말했다. “‘파룬따파 하오, 쪐싼런 하오’를 외우니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는 하루에 고기를 300근 정도 밖에 못 팔았는데, 저 혼자서 팔았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1,300근 정도를 팔 수 있고, 건물 안에 매장도 빌렸어요. 가끔 저희 부부 두 사람이 감당을 못해서 사촌언니가 와서 도와줘요.”

평소에 내가 늘 그녀에게 파룬궁 진상 간행물을 전달하면 그녀는 항상 기쁘게 받아 자세히 읽었다. 2015년 파룬궁 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할 때 내가 그녀를 찾아가니 그들 부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서명과 지장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장쩌민 고소를 지지해주었다. 또 장쩌민이 너무나 나쁘고, 좋은 일을 안 했다며 마땅히 그를 고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그녀의 장사가 더욱 번창했다. 시장의 그렇게 많은 고기 판매대가 대부분 한산하고 손님도 몇 사람 없지만, 그녀의 판매대 주변에는 늘 사람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고기와 갈비가 다른 집보다 한 근에 1, 2위안 비싼데도 아주 빨리 팔렸고, 큰 갈비 한 짜이 잠깐 사이에 모두 팔렸다. 바쁠 때는 네 사람이 일해도 눈코 뜰 새가 없었다.

나중에 그녀는 나만 보면 외쳤다. “파룬따파 하오!”